

## 엔겔베르트 훔퍼딩크는 누구일까?



훔퍼딩크  
E.Humperdinck  
(1854-1921)

훔퍼딩크는 독일의 작곡가예요. 그의 작품은 주로 바그너풍의 스타일을 보이며, 독일 민요의 요소를 받아들여 독일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적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민요의 단순하고 소박한 멜로디부터 웅장하고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소리로 현대적이고 복잡한 화성의 관현악까지 상당히 대조적인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그의 작품 중 누이동생 베테의 대본에 곡을 붙여 만든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만이 오늘날까지 상연되고 있어요.

## 그림형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헨젤과 그레텔'

### 익숙한 선율로 그려내는 환상적인 숲의 풍경

<헨젤과 그레텔>은 총 3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예요. 여동생 그레텔과 모래요정은 소프라노, 그레텔의 오빠인 헨젤과 어머니는 메조소프라노, 마녀는 테너(또는 메조소프라노), 아버지는 바리톤 배역이랍니다. 이번 작품은 모두 노래와 대사가 연결되어 흘러요. 리듬이 단순하며 누구나 흥얼거려본 구전동요를 등장시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런 선율들은 작품 전체의 음악적 뼈대를 구성하며 빼어난 대위적 기법 및 유동동기 작법으로 얹혀져 있어 작품의 줄거리를 음악적으로 암시해주어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두 남매는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헨젤과 그레텔을 만나러 떠나봅시다!



작곡 엔겔베르트 훔퍼딩크  
원작 그림형제[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  
대본 아델하이트 베테  
초연 1893년 12월 23일 독일 바이미르 궁정극장



## 국민 모두를 위한 오페라, 모두를 위한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1962년 창단·2000년 재단법인 독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오페라 최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오페라단이 되기 위해 오페라가 자주 개최되기 힘든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오페라>로 문화확산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중소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찾아가서 오페라를 선보이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미래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을 발굴하는 <성악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학교를 방문하는 <학교오페라>를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립오페라단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 국립오페라단 교육문화팀 02-580-3565 [www.nationalopera.org](http://www.nationalopera.org)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 위대한 오페라가 된 한 편의 동화

# 국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

E.Humperdinck

## Hänsel und Gretel

주최·주관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 출연진

연출



이범로

음악코치 · 피아니스트



이미나



임혜림

헨젤



김주희

메조소프라노



원상미

소프라노

그레텔



김제니

소프라노



오신영

소프라노

마녀



김동섭

테너



이미란

메조소프라노

아버지



김은곤

바리톤



김치영

바리톤

어머니



정유진

메조소프라노



최종현

메조소프라노

프로덕션

무대디자인

조연출

음향진행

무대진행

의상진행

신재희

김호원

김건형

이상문, 강승구

양지은

제작/기획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어떤 이야기일까?

### 1 빛자루 장수의 집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숲가에 위치한 가난하고 누추한 집에서 헨젤과 그레텔은 엄마가 시킨 일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며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다가, 곧 함께 장난을 치며 노는 데 정신이 팔린다. 그때, 엄마가 돌아와 시킨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을 야단친다. 도망가는 둘을 붙잡으려다가 저녁에 먹을 생크림이 든 단지를 깨뜨린 엄마는 화가 나고 막막해져서, 산딸기라도 따와서 저녁으로 먹어야 할 거라며 아이들을 숲으로 보낸다. 아빠는 모처럼 빛자루 장사가 잘되어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온다. 아이들을 숲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깜짝 놀라며 숲 속 무서운 마녀에게 잡힐까봐 걱정을 한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찾으러 집을 나선다.

### 2 숲 속

헨젤과 그레텔은 숲에서 딸기를 따고 바구니에 딸기가 가득차자 다시 장난치고 놀다가 딸기를 다 먹어버린다. 빈 바구니로 집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또 야단맞을 것 같아 다시 딸기를 따기로 하는데 날은 벌써 어두워져버렸다.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겁에 질려 떨기 시작한다. 그때 숲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모래요정이 찾아와 이들이 꿈을 꾸며 잠들 수 있게 해준다.

### 3 과자로 만든 집

아침에 숲에서 모래요정이 헨젤과 그레텔을 깨운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한다. 헨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레텔이 말린다. 하지만 배가 고픈 남매는 밖에서 그 집을 뜯어먹기 시작한다. 과자로 만든 집의 주인인 마녀가 나타나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남매를 유혹한다. 겁먹은 남매가 도망치려 하자 마녀는 마법을 걸어 둘을 잡아들인다. 마녀는 헨젤을 맛있게 살찌워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해 헨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준다. 헨젤의 손가락이 너무 말랐다고 생각하고 그레텔을 먼저 구워 먹으려 한다. 하지만 그레텔은 화덕을 들여다보라는 마녀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해 재빨리 마녀를 화덕에 밀어 넣고 헨젤을 구해준다.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달려와 둘을 품에 안으며 모두들 행복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와 원작동화는 무엇이 다를까?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과  
원작 동화 '그림형제'의  
5가지 차이점을 찾아보아요.



**첫째,** 오페라에서는 헨젤과 그레텔의 어머니가 계모가 아닌 친어머니로 등장해요. 어머니 성격은 원작과 비슷하게 신경질적이에요.



**둘째,** 오페라에서는 부모님이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지 않고 남매가 생크림 단지를 깨뜨린 벌로 산딸기를 구하러 숲에 갔다가 길을 잃게 되요.



**셋째,** 오페라에서는 마녀가 죽고 마법이 풀리자 과자집에 붙어있던 과자인형들이 전부 아이들로 돌아오고, 화덕 안에서는 마녀가 큰 과자가 되는 내용이 더해졌어요. 그러나 이번엔 관람하는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지혜롭게 마녀를 물리친 헨젤과 그레텔이 부모님과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내용으로 막을 내립니다.



**넷째,** 동화에서는 마녀에게 잡힌 다른 아이들 대신 두 남매가 마녀의 보물들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동화에서는 마지막에 계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는답니다.

